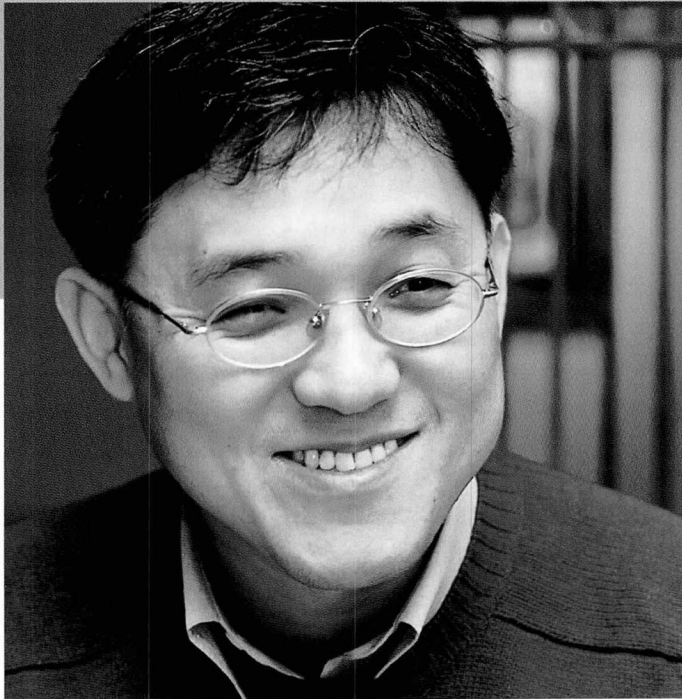


“독선적이고 닫힌 교회는 해체돼야 한다”

《반신학의 미소》 펴낸 김진호 목사



민중신학자인 김진호 목사는 민중신학이 박제화된 이 시대에 '새로운 신학적·신앙적 실존 양식'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 책에서 김목사는 '서양-백인-남성의 눈'에 준거하는 서구 주류신학을 해체하고 서구 신학적 해석학의 거점인 교회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교의 성숙과 신앙고백의 회복을 위한 그의 주장은 물신숭배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성소의 '밀실'에서 역사의 '광장'으로 뛰쳐나오던 때가 있었다. 1970, 80년대 민중이 꺾박받고 수난당하던 시절, '저 높은 곳'에 있던 신학은 '저 낮은 곳'을 향해 몸을 낮췄다. 민중의 고난에 동참했던 신학자들은 '민중신학'이라는 이론과 실천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는 예수를 재발견했다.

1980년대 '불의 연대'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중예수'는 이제 고난의 땅을 떠나 '광야'로 돌아가버린 듯하다. 예수의 몸인 교회에선 사랑과 정의의 거짓된 이름으로 황금탑을 쌓아올리고 있고, 신의 말씀인 《성서》는 개인의 일그러진 욕망 앞에 무력한 것처럼 보인다. 신이 떠나버린 역사의 자리에는 물신의 우상만이 숭배받고 있다.

반신학은 민중의 눈으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것

민중신학자 김진호 목사(40, 한백교회)는 《반신학의 미소》(삼인)에서 유배당한 민중예수를 다시 호명한다. 교회에서 박제된 채 눈물 흘리고 있는 예수를 오늘날 역사 속에서 되살리고 있다. 그는 굼주린 얼굴,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 가솔 청소년의 얼굴, 동성애자의 얼굴, 즉 이 체제가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존재들에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한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반신학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1부 '반신학의 신앙적 재구성을 위해'에서는 지식인의 삶과 신에 대한 느낌 등을 문학작품과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2부

'위기의 세계화와 반신학'은 야훼신앙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3부 '교회의 위기와 반신학'은 오늘날 교회의 위상을 보여주고 '해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4부 '성적 테러리즘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공격성을 비판한다.

김목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작업을 '반신학'이라고 규정한다. 반신학이란 '서양-백인-남성의 눈'으로 세계와 성서를 해석해온 서구 주류 신학을 해체하고 서구 신학적 해석학의 거점인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신학적, 신앙적 도그마에서 교회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교계와 학계에서는 '민중의 시대가 왔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주장으로 민중신학에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계급투쟁, 극단적인 이념대립 등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민중신학은 극단적인 어느 이념에 귀속되지 않았고, 다만 급진적인 자기 성찰의 언어로 존재해왔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도권을 기꺼이 벗어난 민중신학자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신학의 용어가 아닌 용어'는 자신들의 설자리를 더 좁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주류가 되길 거부한 이들에게 외부에서 내리는 일방적인 선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평가, 분위기가 더 낫다는 반응이다. 문명의 질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체질적으로 거부한 이들이 더 진지하게 신학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반길 정도다.

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몸 낮춰

신학자인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신학자에 대한, 아니 신앙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다.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내 '바라는 신의 이미지'가 있다는 말로 놀란 마음을 가라앉게 한다.

“신이 어떤 존재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바라는 신의 모습은 있어요. 그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또 예수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데는 선배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책에서 도움을 받았습시다.”

그가 간직한 신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는 “그 분은 자신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신이 실로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으로 내려앉을 까닭도,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렇게 비참한 생을 살다 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신의 지존의 겸양이야말로 신에게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한다.

책에서는 이 겸양에 대해 김철식 시인의 <달팽이>를 들어 설명한다. “시인은 세기말의 인류의 위기를 말하면서 원시적 생명체인 달팽이가 되겠다고 자신의 ‘퇴행’을 술회하고 있다. 바로 그것처럼 신은 모멸적 존재의 상징인 인간으로 자신을 퇴행시킴으로써 그 인간의 구원자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며 깊어지는 눈을 보니, 문득 신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신을 가까이 느낀 적이 있는가는 말로 에둘러 물으려니 “신비체험 말인가요?”라고 시원스레 말문을 연다.

“어릴 적에는 신비체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니에요. 진정으로 신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열리는 것인데, 그 체험 후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모든 대화통로를 막아버렸으니 신체험이 아니죠. 지난해 신문에서 한 짧은 시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재벌총수의 사망소식에 가려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한 노숙자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내 가슴에 와 꽃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체험이라 생각해요.”

야훼신앙의 역사성 회복해야

2장에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원야훼신앙’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신앙을 일컫는 야훼신앙이 역사 속에서 탄생할 때 어떤 함의를 가졌는가 하는 의문이 원야훼신앙”이다.

“야훼신앙은 여러 형태입니다. 또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야훼신앙을 신학적으로 출애굽신앙이라 하고, 그것을 자기 시대에 반추해 야훼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 속에서 ‘예수의 해석’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그 해석의 계보를 잊습니다. 성서는 야훼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해석은 가능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회의 자폐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면 한 사상을 거부할 정도로 분명한 식견이 있는 교회가 ‘가능성과 한계’라는 해석의 속성조차 무시할

정도로 야훼신앙에 대한 ‘유일한 해석’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 해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신학자의 의무”라는 그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린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조를 줄줄이 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해체적 지향’에 그 초점이 있고, 심지어 ‘신상(image of God) 파괴’의 신앙을 내포합니다.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었다’는 그리스도교의 공리적 신조는 ‘신이 인간의 구원자’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됐’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격성과 배타성 넘어서야

이런 그의 견해는 3부 ‘교회의 해체와 민중신학’에서 자세히 밝혀져 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존재의 치욕스러움의 현장 ‘밖’에서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해체하고 그 안으로 개입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타자적 존재로서의 신/신상의 자기 부정’을 선언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임을 자임하는 사람은 궁극자·초월자·전능자 등등의, 인간에 대한 타자성을 통해 신상을 표상하려는 욕망까지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canon), 교리체계 등이 통합돼 만들어진 기독교제도에는 공격성이 도처에 숨어 있고, 그 공격성과 분리된 기독교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제에 대한 ‘발본적 해결책’으로 교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통과 이단을 논하거나 여성 성직자를 거부하는 등 ‘내부의 타자’를 공격하고 영화나 노래를 비판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배타성은 기독교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가장 가까운 예다. 신에 대한 극단적인 숭배가 타인에 대한 아량을 넘어선 지 오래고, 신을 증거하는 것이 독선이 된 것 또한 오랜 역사를 지녔다. 따라서 “사회의 다른 범주들과의 필연적인 ‘신앙적/신학적 체계로서의 종교의 재정립’을 요구”하며 교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그의 목소리는 탄력을 잃은 우리 신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차정신 기자

김목사는 ‘망원동 올빼미’

김목사는 야행성이다. 밤에는 글만 쓴다. 현재 <당대비평>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등 참여하는 단체도 많아 늘 뽀뽀한 일정이지만, 밤에는 예외 없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일필휘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서 밤새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있지만, 더 문제인 것은 자꾸 고치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김목사는 해명되지 않는 것은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진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열일곱 번 봤다는 데서 그의 이런 면모가 느껴진다. 여덟 번은 한자리에서 봤다고 하니 대단한 집중력이다.

“지금은 읽는 게 취미예요. 읽어야 할 게 있을 때 다른 것 읽는 것, 딱 짜인 생활 속에서 틈이 났을 때 함부로 낭비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죠. 집착하는 성격인데다 의무적으로 알아야 할 게 많아지는, 마니아 생활은 이제 자제하려고 합니다.”



삼인/A5신/344면/14,000원